

세계적 기업 '도레이' 군산에 3000억 투자

새만금산단서 PPS공장 기공식 1700명 고용·1조 수입 대체효과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새만금산업단지에 3000억여원을 투입해 첨단소재 공장을 짓는다.

도레이의 한국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8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에서 PPS(폴리 페닐렌 설파이드=Poly Phenylene Sulfide) 수지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도레이는 PPS 수지에서 컴파운드(화합물)·필름·섬유까지 생산하는 종합제조업체로, 세계 PP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도레이가 PPS 기술을 해외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PPS 수지는 가볍고 열에 강해 화학플랜트와 반도체, 정밀기기, 자동차 엔진·모터 등의 주변부품,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경량화를 위한 부품소재로 사용된다.

도레이는 오는 2018년까지 3000억여원을 들여 새만금산단 21만5000㎡에 PPS 수지와 PPS컴파운드, 주원료까지 PPS생산의 3개 공정을 모두 갖춘 공장을 건립한다.

도레이는 2015년 6월까지 1단계 생산라인을 완공, 연간 PPS 수지 8600여t을 생산하고 이후 설비 증설을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PPS 수지는 대부분 중국 등에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공급된다.



세계 PP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지난 8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첨단소재 공장 기공식을 갖고 있다. <군산시 제공>

이 업체가 가동되면 도내에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이 도입됨과 아울러 국산화를 통한 연간 1조300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또 직접고용 150여명을 포함한 1700여명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지방세 증대 등이 기대된다. OCI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이어 이번 도레이의 공장 설립으로 침체를 거듭했던 새만금산단의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첨단소재의 군산공장 기공에 따라 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 풍력 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에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면서 "공장 완공에서 가동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다문화자녀 1:1 가정교사 반값 산후조리원 개설 등

순창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여성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개분야에 73개 단위사업을 발굴했다.

군은 9일 73개 단위사업 중에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15대 주요 핵심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1:1 가정교사를 파견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맞벌이 부부가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학 전 야간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젊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

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공간을 만들고, 산모들이 출산 후 몸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반값 산후조리원도 개설키로 했다.

특히 보육시설에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에 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교육과 창업지원 사업을 대폭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 군정의 역점사업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며 "여성에게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임신부터 출산, 육아, 보육,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을 위한 친화공간 조성과 취업과 창업, 문화에 활용할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박물관, 도강 김씨 유물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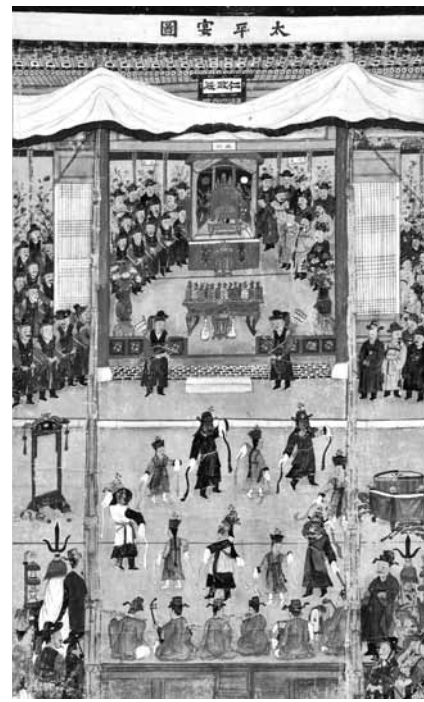
동정공파 기탁 교지·회화 등

정읍 시립박물관은 도강 김씨 동정공파가 기탁한 유물을 전시하는 특별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연다.

특별전에서는 동정공파 문중이 간직해 온 김회련 공신녹권과 교지, 유서 등 70여점의 보물과 전북도 지정 문화재 등이 공개된다. 동정공파는 조선 개국 공신인 김회련을 중심으로 한 정읍 칠보면 일대의 명문가이다. 특별전에서는 '국새와 관인 찍어보기', '우리 가문 소개하기', '과거급제자 남시오'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읍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기탁유물 이외에도 여러 도강 김씨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교지와 회화, 전적, 고문서 등을 전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문중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영조가 의금부도사 김도연에게 내린 '태평연도'(전북도 유형문화재 제13호)

전남 소식

전남 10대 쌀, 수도권 공동 판매

내달 3일까지...서울·고양 등 홍보물 배부·시식 행사 진행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서울시 양재 및 창동 하나로 클럽과 경기도 고양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올해 선발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공동 판매전을 전개한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나비쌀(함평), 녹차미인 보성쌀(보성), 달마지쌀골드(영암), 대숲맑은쌀(담양), 드림생미(나주), 수호천사 건강미(고흥), 아라미 쌀(장흥), 프리미엄 호평(강진), 한눈에 반한쌀(해남), 황도랑쌀(무안) 등이다.

이번 공동 판매전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의 수도권 농협 3대 판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이곳에서 공동 판매전을 전개함으로써 수도권 소비자에게 전남 브랜드 쌀의 우수성을 물론 전국 브랜드 쌀에서 11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된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과 창동 하나로클럽에서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쌀 홍보물 배부, 전남 쌀 시식행사, 구입 고객에게 증정용 쌀 제공 등 전남 브랜드 쌀 공동 판매전을 펼친다.

특히 10일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 전남 브랜드 쌀 공동판매전에 앞서 서울시(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서울시사회장 임영희)과 전남 10대 고품



전남10대 고품질 쌀 브랜드인 '나비쌀'.

질 브랜드 쌀 RPC 대표간 전남 쌀 우선 구매와 생산 현장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판매전을 실시해 수도권 전남 쌀 판매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 및 전남 브랜드 쌀 RPC 관계자는 이들 3개 대형 판매장을 방문, '201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별 과정과 선별 결과를 설명하고, 전남 브랜드 쌀의 입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얼굴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모시겠다"

김 병 권 순천시의회 의장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법이라는 원칙 아래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순천시의회 김병권(46) 의장은 "대한민국 대표 정원의 도시로 순천시의 백년지계를 기리며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뿌리 경영대상 최우수의원,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우수의원 등을 수상하며 "지난 제6대까지의 의회가 지방자

치라는 텃밭에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면 제7대 의회는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5대 의원과 5대 하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5회 풀뿌리 경영대상 최우수의원,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우수의원 등을 수상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www.hcnara.co.kr

간편하게 간편해!

골프, 등산, 레저스포츠 등에 강장제로서 간편히 응용할 수 있고
음주 전후 섭취 하면 숙취해소에 좋으며 술에 혼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등산할때, 운동할때, 일할때, 공부할때, 운전할때, 술자리할때

제품명: 간편해 식품의유형: 다류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국내산 황칠나무(36%), 정제수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조원: 황칠나무(주)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산단로 40 TEL: 061)864-5788 판매원: 황칠나무(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53-20 TEL: 061)371-678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